

<여성의 정치참여>

2422리본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난 4·15 총선은 여성들이 전면에서 활약한 선거였다. 제16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넘기 위한 대책으로써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여성을 당대표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또는 대변인 등으로 앞장 세웠다. 그 결과 여성들에게는 당당하게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 받는 기회가 되었다.

상당기간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계의 선거관련 제도개혁운동의 성과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새로운 정치풍토 조성에 대한 열망이 맞물리면서 10명의 지역구위원을 포함한 39명의 여성위원을 제17대 국회 진출시킬 수 있었다. 유엔의 권고치인 30%에는 못미치지만 국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13%의 참여율을 기록한 것을 두고 <여성의 정치시대>가 열렸다고들 한다.

정치란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여성계에서는 인구의 반인 여성이 자기의 삶의 조건을 자신이 만들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갈망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것은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종래의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데 있었다.

유권자들은 지난 국회의 난맥상을 떠올리며 부패정치척결, 맑은정치실현, 패거리정치중단, 상생정치실현, 민생과 민족문제만이라도 정쟁꺼리로 삼지 않는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올곧은 정치, 생활정치 구현에 여성의원들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오랜동안의 정치관행을 소수가 바꾼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39명의 여성의원들이 새로운 정치문화를 도출해내는 일에 있어서만은 당내외에서 소속정당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성급한 일이지만 ‘여성을 다수 국회에 보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이 회자되기 시작했으며 여성의원들을 개인의원으로 보기보다 한몫치로 간주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잘잘못을 여성의원 전체 또는 여성계에게까지 연계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생겨지고 있다. 여성계가 제17대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제17대 국회의 여성의원들이 각 정당별 그리고 초당적인 여성의원들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장으로서의 기구들을 만든 것은 바로 그러한 국민들의 뜻을 감안해서일 것이다. 그런가하면 여성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의원들을 격려하며 지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총선전 여성후보자를 발굴하여 각 정당에 공개 추천한 바 있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존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모니터하도록 <제17대 평등국회지킴이>를 출범시켜 이미 그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여성계가 공동책임을 자인하고 나선 것이다.

제17대 국회의 정치문화는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구성원에 의해 가능하다. 39명의 여성의원인 원내의 주류를 이루기에는 태부족이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후원이 따라주는 한 여성의원들의 참여확대로 정치풍토에 새로운 바람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여성의 정치참여>

박영숙(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지난 4·15 총선은 여성들이 전면에서 활약한 선거였다 제16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속에 달했던 불신의 위기상황을 감지한 정당들이 경쟁적으로 여성을 당대표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또는 대변인 등으로 앞장 세웠다 그 결과 여성들은 당당하게 위기관리 능력을 검증 받는 기회가 되었다

오랜동안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계의 선거관련 제도개혁운동의 성과와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새로운 정치풍토 조성에 대한 열망이 맞물리면서 10명의 지역구위원을 포함하여 39명의 여성위원을 제17대 국회에 진출시키기에 이르렀다 유엔의 권고치인 30%에는 못미치지만 국회 개원이래 처음으로 13%의 참여율을 기록한 것을 두고 <여성의 정치시대>가 열렸다고들 한다

정치란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 여성계에서는 인구의 반인 여성들이 자기의 삶의 조건을 자신이 만들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갈망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난 총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여성 후보에게 지지를 보낸 것은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종래의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어야 한다는데 있었다고 본다.

유권자들은 지난 국회의 난맥상을 떠올리며 부패정치척결, 맑은정치실현, 패거리정치중단, 상생정치실현, 민생과 민족문제만이라도 정쟁꺼리로 삼지 않는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울골은 정치, 생활정치 구현에 여성의원들을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정치풍토에 새바람을 일으키기 위해 '단'이라는 제동을 17대 여성의원들이 당내외에서 소속정당을 떠나 한목소리를 내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성급한 일이지만 '여성을 다수 국회에 보냈는데 무엇이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이 회자되기 시작했으며 여성의원들을 개인의원으로 보기보다 한몸치로 간주하면서 의원 개개인의 잘잘못을 여성의원 전체 또는 여성계에게까지 연계해서 평가하는 경향이 생겨지고 있다 여성계가 제17대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분위기이다

제17대 국회의 여성의원들에게 유권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 각 정당별 그리고 초당적인 여성의원들의 대화와 협력을 위한 장으로서의 기구들이 만들어졌는가 하면 여성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의원들을 격려하며 지원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총선전 여성후보자를 각정당에 공개 추천한바있는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를 존치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모니터링하도록 <제17대 평등국회지킴이>를 출범시켜 이미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동책임을 자인하고 나선 것이다

제17대 국회의 정치문화는 반드시 새로워져야 한다 관행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새로운 구성원에 의해 가능하다 39명의 여성의원인 원내의 주류를 이루기에는 태부족이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후원이 따라주지 않는 한 여성의원들의 힘으로 정치풍토의 새로운 바람은 일어날 것으로 확신한다

여성의 정치 참여

박영복 호남여성새로고상 이사장

지난 4.15 총선으로 여성들이 전면에서 활약한 선거였다. 제16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았던 가운데 여성의 위기상황을 감지한 정당들이 경쟁구도로 여성을 당대물결로,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또는 대변인 등으로 앞장 세웠다. 그 결과 여성들은 당당하게 위기관리능력을 검증받은 기회가 되었다.

오랜동안의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여성계의 선거관련 제도개혁운동의 성과로 국민들의 열렬한 관심과 새로운 정치풍조 조성에 대한 열망이 맞물리면서 10명의 지역주의자를 포함하여 39명의 여성위원을 제17대 국회에 진출시키기에 이르렀다. 우편의 권고치인 30%에는 못미치지만 국회개원 이래 처음으로 13%의 참여율을 기록한 것을 두고 <여성의 정치시대>가 열렸다고 할 수 있다.

정치권은 선거의 결과를 만드려나오 리점으로 보고 있는 여성계에서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이 선거의 결과에 자신이 반기기 위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위원들이 여성후보에게 지지를 보냈고 여성들이 지내고 있는 현실으로 종래의 잘못된 정치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본다.

위원들로서 지난국회의 낙방상을 떠올리며 부패정치청정, 맑은정치 실현, 깨끗한 정치풍조, 상생정치 실현, 민생과 민족문제반대로 경쟁체제로 삼지 않는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운동으로 정치, 생활정치 구현에 여성위원들을 대안으로 대안하는 것이다. 관행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정치풍조에 변화를 이룩하기 위해 "단"이라는 제를 17대 여성위원들이 당내외에서 노력함으로 대안하는 것을 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성숙한 입자지만 "여성을 다수 국회에 보냈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여성위원들을 개인위원으로 보기 보다는 한복합으로 간주하면서 의회 개편이나 입법권을 여성위원 전체 또는 여성계에게 내려 줄 것에 대해서 공감대형성을 위해 노력할 분이기이다.

제17대 국회의 여성위원들에게 위원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에 부응하기 위해 주권당배를 그리고 호당적인 여성위원들의 대안과 해를 위한 장으로서의 기관들이 만들어졌는지 여부는 여성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여성위원들을 격려해나갈 지위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총선과 여성후보를 선출함에 공제 후회한 바와는 달리 정치여성에게도 주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위원들의 의정활동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제17대 평등국회지킴이>를 출범시켜 이미 그 활동을 시작하였다. 공동행임을 지어내고 나설 것이다.

제17대 국회의 정치문제는 반드시 새로운 패러다임을 관행은 바꾸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정치권에 의해 가능하다. 39명의 여성위원이 원내외 주권을 이루기에도 대부족이지만 국민의 정적적인 주권이 대안주하는 여성위원들의 힘으로 정치풍조의 새로운 바람이 이룩되기를 기대한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합 시사화보 -

時事 大韓 畫報

문서번호: 대화 제040909-3호

시행일자: 2004. 9. 9

수 신: 한국여성재단 대표

참 조: 정수현

제 목: 기고 청탁 사항

전 결			지 시	
접 수	일자 시간	2004.9.9	결 재	
	번호	317		
처 리 과	기획홍보팀		이사장	
			사무장	
담 당 자	김민준		공 람	탐장

1. 귀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평소 여성 문제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창간역사 56년의 대한화보는 우리사회 각계 리더들과 대담을 통하여 각 분야의 발전상과 긍정적인 참모습은 물론 감동적인 삶의 현장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3. 본지 2004년 10월호 "파워 여성 킬럼"에서 한국여성재단의 대표님을 모시고자 다음과 같이 기고청탁 부분을 의뢰하오니 검토 하신 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 주제 : 여성 관련 자유 주제
- 2) 분량 : A4 1매(글자크기 9포인트)
- 3) 기한 : 9월 18일
- 4) 사진자료(인물사진) 및 약력 요망

취 재 기 자 : 홍 욱 기

월간 시사 大韓 畫報

